

# 서구, AI시대 미래교육 핵심가치 제시

미래교육포럼 통해 '인간다움' 중심 교육 모델 구체화  
놀이·예술 기반 미래 교육 정책 확산 기반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서구는 16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아동·청소년 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서구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교육 정책 구체화에 나섰다. 서구는 16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AI시대 인간다움, 놀이와 예술로 지켜내다'를 주제로 미래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인간다움'을 미래교육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놀이와 예술,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미래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사단법인 꿈틀리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AI시대로의 질주, 우리는 더 행복할까?'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으며 오연호 편집플레이 서울 대표, 김주희 전주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김결 와글플레이 이사, 김혜일 함께서구 행복학교 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AI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가치와 지역사회 중심 미래교육 모델을 논의했다.

오연호 대표는 "AI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자기주도성과 공감능력"이라며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는 교육보다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AI가 지식과 정보를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성과 공감 능력, 협동심 등 인간만이 지닌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지역사회가 놀이와 예술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교육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서구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함께서구 행복학교와 화정숲 프로젝트를 비롯한 놀이·예술 기반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세대를 키우는 서구형 미래교육 모델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함께서구 행복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창의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 북구, 도심 속 야외 물놀이장 23일 개장

동강대 운동장·산동교 친수공원 2곳  
다음 달 20일까지 무료 개방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북구(구청장 신수정)가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는 도심 속 물놀이 공간을 개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동강대학교 운동장과 산동교 친수공원에 조성한 야외 물놀이장이 오는 23일 문을 열고 다음 달 20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주민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레저공간을 도심 내에 마련해 여름철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놀이시설은 연령대별 풀장 4개(유아 2, 어린이 1, 청소년 1)와 에어슬라이드, 에어 바운스 등으로 구성됐

으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매점 ▲몽골 텐트 ▲파라솔 ▲그늘막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함께 운영된다.

물놀이장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13~14시 점심시간 제외)이고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 및 재정비를 위해 휴장한다.

북구는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경사면 평탄화,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등 마쳤으며 시설 운영 시 안전관리자 및 의무 요원 등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풀장 물은 수시 소독, 여과

기 가동, 부유물 제거 등 철저히 관리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올여름 야외 물놀이장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 보내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들기 바란다"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및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운영 기간 동안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보호자 안전수칙 안내도 함께 실시한다.

물놀이장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과 위험행위를 제한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급장비를 비치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수질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즉시 소독과 물 교환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을 통해 이용객 불편 사항을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북구는 이번 물놀이장 운영이 주민들의 여름철 여가활동 활성화와 도심 휴식공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여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관 기자



지난해 운영된 산동교 친수공원 물놀이장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